

01

FTA FOCUS

2025년도 관세청 FTA와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2025년도 관세청 FTA와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박헌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1. 들어가며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로 당초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하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은 2.0%, 한국은행은 1.8%,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로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정세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작년보다도 더 힘든 시기가 될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요국들의 新 통상규제 강화 움직임도 보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중동지역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산업 침체와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미국과 중국간의 보복관세 전쟁 등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산업의 수출과 공급망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 인권 등 新 통상 규제 이슈와 각종 수입쿼터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원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ODA 사업을 전개하는 등 글로벌 관세행정 영향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II. 2024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작년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최초 FTA인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FTA 2.0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관세행정을 선도하는 한국 관세청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였다.

WCO 원산지기술위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전자원산지증명서(e-C/O)에 대한 국제표준지침 제정을 주도하였다. 국제우편신고 서식 역시 2024년 6월 UPU와 WCO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192개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프리카 정상회의와 연계한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여 AfCFTA 사무국과 MOU를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일괄연장 및 인증승계 허용과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FTA 활용여건을 개선하여 기업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수출활용률 증가에도 기여하였다.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수출 전 주기(준비-활용-통관) 관세행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사업과 공익 관세사 자문서비스 및 저금리 무역금융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특히 관세청-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 우수기업에 대한 저금리 여신을 통해 이자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국내 기업들의 통관단계 불편 해소를 위해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를 확대(1회→4회)하고, 통관애로 다발국에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중국산 요소 긴급 수출물량(7천톤)의 신속통관 등의 성과를 통해 물류비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한-인니 CEPA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 교환시스템인 EODES를 2024년 2월 개통하여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을 없애 수입국 내 신속통관을 지원하였다.

Ⅲ. 2025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추진방향

올해 관세청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국제협력 전개
2. FTA 2.0 선도를 위한 이행체제 혁신
3. 촘촘한 지원전략으로 수출기업 도약 지원
4. 미래 대비 및 업무역량 강화

1.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국제협력 전개

가. 2025년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 성공적 개최

올해 한국에서 2005년에 이어 APEC 회의가 개최되며, 관세청은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의장으로 총회, 워크숍, 세관과 민간대화 등을 주최할 계획이다.

우선 통관절차소위원회는 21개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며, 총회에서는 관세청 스마트혁신 과제 중 AI, e-C/O 등 디지털 혁신 관련 의제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APEC 중점과제가 논의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관혁신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 가이드라인」(가칭)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APEC 기금사업을 통해 한국형 AEO 모델, 탄소중립전략, 특송물류 모델 등을 회원국에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 X-RAY 장비



등을 주제로 관세 혁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하며, 회원국과 수출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을 부대행사로 추진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나. WCO(세계관세기구)와 협력 강화로 국제표준 선점

WCO와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관세행정의 국제표준을 선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 e-C/O(전자적 원산지증명서) 표준화 작업이 WCO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하고, X-RAY 판독기술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표준가이드를 제작·보급함으로써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다. ODA 사업의 브랜드화 및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관세청은 종전 ODA 지원방식을 질적·양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관세청 비전 달성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관세청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 검색·감시장비와 능력배양사업을 묶어 수원국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급할 수 있는 ODA 사업(가칭 K-CustomsBorder)을 개발하고, 전자상거래 통관과 관련된 ① 자동화설비 ② 관리시스템(SW) ③ 물류센터 운영연수로 구성된 특송물류모델 사업(가칭 K-SmartExpress)도 추진할 계획이다.



2. FTA 2.0 선도를 위한 이행체제 혁신

가.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원산지검증 고도화

우리나라의 FTA 무역규모(77%)와 FTA 활용률(86%)을 고려할 때, 국내 수출입 기업의 FTA 적정 이행관리와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검증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입검증에 있어서는 다수 협정을 활용하는 수입업체에 주요 위반 사례 및 상대국 검증 동향 등 사전에 위험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자율적 시정기회 부여 등을 통해 법규준수도 제고를 유도할 것이다.

또한 수출검증에 있어서는 K-브랜드 훼손과 국가신인도 저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개국이상 연결공정 제품과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물품 등 우회수출의 위험이 있는 품목들을 선별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나. FTA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FTA 활용 지원을 위해 한국산임에도 입증자료의 구비가 어려운 물품을 중심으로 서류제출을 간소화해 나간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을 활용하여 국내 제조사실(차대번호)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도록 원산지증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가와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FTA 수출지원을 위해 마스크 팩, 립스틱 등 K-화장품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다. 원산지 판정기관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대외무역법 개정('22.12월) 따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금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규정이 신설 되었으나, 현재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내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관세청이 전담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라. 글로벌 원산지검증 협력 추진

국내 업체들의 무역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년간 축적된 FTA 원산지검증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체약국과 협정별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체 구축을 추진한다.

원산지검증 당국 간 수시·정기 협력회의 채널을 구축하여 검증 현안과 우수한 제도 및 경험의 공유를 활성화하고, 검증 협력 등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입증 관련 규정이 불명확한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 원산지 입증서류 표준가이드」를 주요 수출국에 제안하고 검증 방식을 표준화하여 글로벌 원산지검증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촘촘한 지원전략으로 수출기업 도약 지원

가. 탄소중립 이슈에 실효성 있게 대응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26.1월)에 앞서, CBAM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여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제공하고, 한-EU 간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EU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안내하는 등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미국에서 올해 도입 예정인 청정경쟁법(CCA)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에 대한 기업 대상 설명회를 통해 입법동향을 공유하고, 업종별 대응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상대국 新 통상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성장 지원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수출 준비 기업 리스트를 활용하여 FTA 활용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여성기업 및 청년창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입점과 수출바우처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금융위원회의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에 공동 참여하며, 주요 은행과는 우대금리 혜택에 관세행정 우수기업이 추천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강화 뒷받침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원산지검증 착수 전 자율점검 단계에서 위험 분석 내용과 위반유형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기업의 자율시정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를 위해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를 폐지하고,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해외공급자가 제조공정도 등을 관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사전심사 신청인의 활용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

수출검증 완료시 수출기업의 원산지 위반 원인분석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원산지 평가회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 제고 및 원산지 반복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 해외통관분쟁 해소 강화

주요 수출 품목인 K-뷰티, 푸드, 패션을 중점 지원 영역으로 지정하여 해외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세청-식약처 간 검역기준과 통관정보 교환을 추가하는 MOU 개정을 통해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하고, 지역세관-지자체·수출유관기관으로 이루어진 해외통관분쟁 신속 접수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4. 미래 대비 및 업무역량 강화

가. 미래인재 양성 및 국제기구 진출 추진

2019년 WCO 능력배양국장 당선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급에 대한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국제협력 업무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국제협력인력 양성방안」을 수립한다.



현재 관세청 위상에 비해 부족한 WCO 인증교관(현재 7명)의 확대를 위해 WCO 인증교관 선발과정을 벤치마킹한 장기 집합교육과정을 개설하고, WCO의 주요 정책 주도를 위해 작년 구성된 TF(2024.10월)를 중심으로 관세청 전문가가 고위직 및 실무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 현장 원산지검증 인력의 전문성 제고

원산지검증 업무방식에 있어 기존 정보분석부터 원산지검증 결과통지까지 개인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팀원 간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팀제 체계로 업무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 원산지검증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세관의 검증사례 등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 검토를 위해 원산지검증, 품목분류, 회계, 현지검증 등 전문가(15명 내외)로 구성된 검증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세관별 검증 편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산지 정보분석 기반 조성

협정관세 적용 품목(농산물 등)의 국가별 수입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급증 등의 특이치 발생 시 원산지검증에 착수하여 원산지 위반 위험성을 조기에 확인할 계획이다.

해외거래처별 원산지 위험정보와 관세조사 등 타업무 적발사례 등을 연계한 우범공급망 DB를 구축하여 정보분석에 활용하고, 정보분석 정확도를 위해 전산 코드값을 세분화하는 등 관세청 내 원산지검증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라. 국익을 위한 FTA 협상 전략 고도화 추진

한-태국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의 신규협상시 e-C/O 도입 근거 명시와 C/O 인정 범위 확대 등 국내 수출기업에 유리한 제도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인도 CEPA, 한-베트남 FTA 등의 이행협상에 참여하여 그동안 빈번하게 통관애로 발생 사항이었던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비원산지 재료가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 판정 지원을 위한 중간재 규정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원산지검증 방식을 간접검증 방식에서 간접검증과 직접검증을 혼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체결국 간 개선 합의 도출을 위해 기재부와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IV. 맺음말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캐나다 및 멕시코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우리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준비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세청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영역에서는 엄중한 상황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올 한해 다양한 위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출입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